

고용률 70% 이상 국가와 우리나라의 성별 노동시장 특징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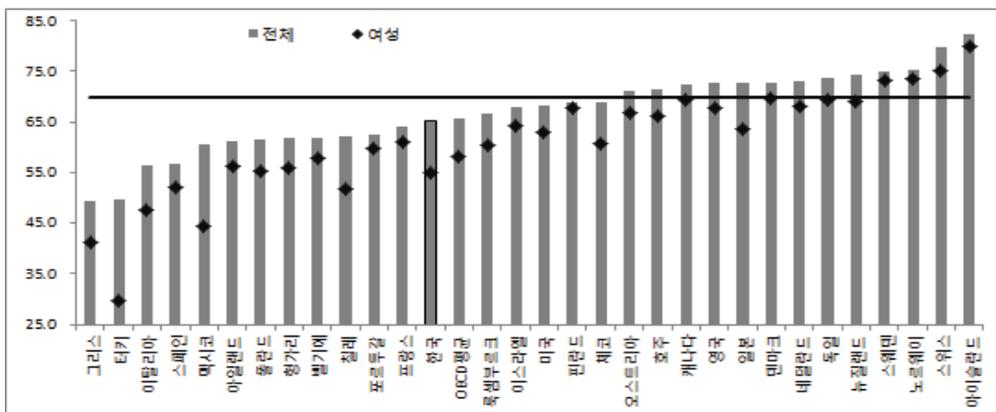
정 성 미*

I. 머리말

우리나라 2014년 기준 고용률(15~64세)은 65.3%로 OECD 평균에 근접하지만, 주요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그림 1 참조). 특히 아이슬란드, 스위스 두 국가의 고용률은 80%를 넘는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노르웨이, 스웨덴, 뉴질랜드,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일본, 영국의 고용률은 70%를 넘는 수준에 있다. 한편, 여성 고용률은 54.9%로 OECD 평균(58.0%)에 미치지 못하며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몇 개의 국가를 제외한 OECD 주요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그림 1] 고용률(15~64세) 국제비교(2014년 기준)

(단위 : %)



자료 : OECD, <http://stats.oecd.org/>

*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smjung@kli.re.kr).

본 연구는 고용률 70%를 넘는 국가를 선정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와 어떤 다른 특징이 있는지를 비교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오랫동안 높은 고용률 수준을 지속해 온 북유럽국가(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와 대륙유럽국가(영국, 독일), 그리고 일본과 미국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노동시장구조와 관련 제도를 비교해 향후 고용률 증가의 여력이 어디에 있으며 정책적 초점을 어디로 맞추어야 할지를 분석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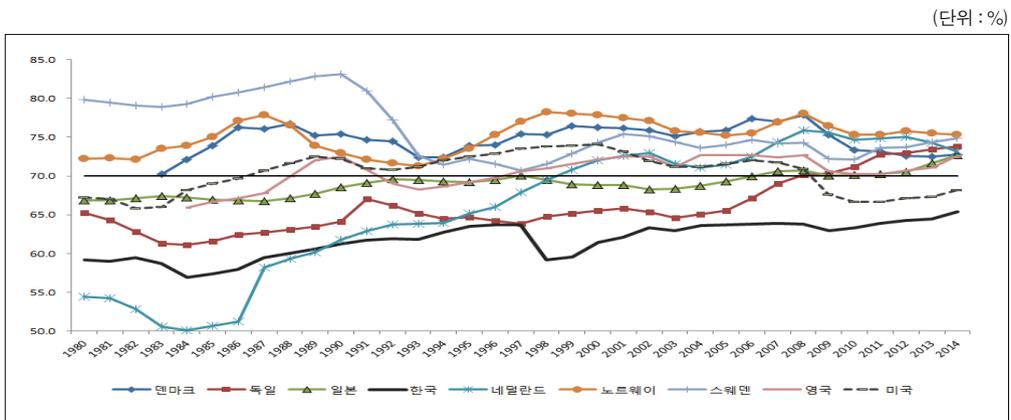
이를 위해 제Ⅱ장에서 선정한 8개 국가와 우리나라의 현재 시점(2014년)의 노동시장구조를 비교하고, 비교국가들이 고용률 70%를 달성했던 당시와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비교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도록 한다. 제Ⅲ장에서는 성별 고용률 변화특징을 연령, 학력, 자녀에 따라 국가별 차이가 어떠한지 분석하고, 제Ⅳ장에서 성별 근로조건의 차이를 비교하도록 한다. 제Ⅴ장에서 가정친화적 제도와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결론에서 정책적 제언을 하도록 한다.

Ⅱ. 고용률 70%를 달성한 국가와 노동시장구조는 어떻게 다른가?

1. 고용률 장기 추세

먼저 우리나라와 8개 국가의 고용률 변동이 시기별로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그림 2]를 통해 1980년 이후 최근까지 고용률 변화추세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속도가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그림 2] 고용률(15~64세)을 70% 이상 넘었던 국가들의 고용률 추이(1980~2014)



있다. 한편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국가와 영국은 시기별 등락은 보였지만, 지속적으로 70%를 넘는 수준을 장기간 유지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1980년대까지는 우리나라의 고용률보다 낮았지만, 1980년 후반 가파른 상승을 한 이후 1990년을 기점으로 우리의 수준을 넘어섰고, 이후 상승추세를 이어가며 1990년대 후반 70%를 돌파하였고 최근까지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일본은 1990년대 초 70%에 근접한 이후 꾸준히 70% 근방의 수준을 유지하다 최근 3년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고용률은 1980년대 중반 이후 70%를 넘어 2007년까지 높은 수준을 지속했었지만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급락하였고, 최근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반대로 독일은 2000년 중반까지 완만한 상승을 하다 중반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였고,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70%를 넘어 최근까지 증가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2. 2014년 현재 우리나라와 노동시장구조 비교

먼저 2014년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와 8개국의 노동시장구조를 비교해 보도록 한다 (표 1 참조). 성별 고용률을 보면, 우리나라 남성 고용률(75.7%)은 일본에 비해서는 약 5%p 정도 낮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유사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여성 고용률(54.9%)은 비교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미국, 일본에 비해 약 10%p 정도 낮고, 노르웨이나 스웨덴에 비해서는 약 20%p 정도 낮아 비교국가들의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낮은 여성 고용률 탓에 남녀 간 고용률 격차도 20.8%p로 매우 크며,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남녀 고용률 격차는 매우 높은 수준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남녀 고용률 격차가 17.9%p로 우리와 유사하지만 이는 남성 고용률이 매우 높은 영향으로 여성 고용률은 63.6% 수준이 이른다. 한편, 북유럽 국가들과 독일, 영국의 남녀 고용률 격차는 10%p 이하의 수준을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15~24세 청년층 고용률은 25.8%로 비교국가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낮은 수준이지만, 이는 높은 진학률에 의한 유희노동력이 상대적으로 많은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핵심연령층인 25~54세 고용률은 75.7%로 모든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이는 여성 핵심연령층 고용률이 낮은 데 주된 원인이 있다. 우리나라의 핵심연령층 여성 고용률은 62.7%에 불과하며, 다른 비교국가는 모두 70%를 넘고 있어 우리와 10%p이상 격차가 나고 있다. 반면 고령층 고용률은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를 제외한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임금수준을 비교해 보면, 먼저 2014년 우리나라 남녀 임금격차는 36.6%로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노르웨이와 덴마크는 7% 수준으로 가장 낮았고,

〈표 1〉 현재 시점 고용률 70% 달성한 국가와 노동시장 구조비교(2014년)

(단위 : %)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영국	미국	일본	한국	
고용률(15~64세)	75.3	74.9	72.8	73.8	73.1	72.6	68.1	72.7	65.3	
실업률	3.6	8.1	6.8	5.1	7.5	6.4	6.3	3.8	3.7	
남성고용률	77.1	76.6	75.8	78.1	78.1	77.6	73.5	81.5	75.7	
여성고용률	73.4	73.2	69.8	69.5	68.1	67.8	63.0	63.6	54.9	
남녀 고용률 격차(%p)	3.7	3.4	6.0	8.6	10.0	9.8	10.5	17.9	20.8	
연령별	15~24세	50.9	42.6	53.7	46.1	58.8	51.2	47.6	25.8	
	25~54세	83.9	85.4	82.0	83.5	81.7	82.0	82.1	75.7	
	(여성)	78.4	82.8	78.4	78.8	76.5	76.1	71.8	62.7	
	55~64세	72.2	74.2	63.2	65.6	76.2	60.8	61.3	65.6	
남녀임금격차	7.0	15.1	7.8	16.6	20.5	17.5	17.9	26.6	36.6	
저임금 비중	전체	-	-	19.0	18.3	13.8	20.5	14.2	24.7	
	남성	-	-	14.4	14.7	11.0	16.1	8.4	16.6	
	여성	-	-	26.2	24.8	25.6	27.4	29.2	38.9	
파트타임 비중	18.8	14.2	19.7	22.3	38.5	24.1	12.3 [*]	22.7	10.5	
임시직 비중	8.3	16.9	8.8	13.4	20.6	6.2	4.2 ^{**}	13.7 ^{**}	22.4	
산업 비중	제조업	20.4	18.5	19.4 [*]	28.2	15.0 [*]	18.8	17.8	25.8 [*]	24.6
	서비스업	77.3	79.5	78.0 [*]	70.4	83.1 [*]	80.2	80.7	70.5 [*]	69.7
근로시간	34.4	36.3	33.5	35.3	30.1	36.7	-	-	44.5	
출산율(명)	1.8	1.9	1.7	1.4	1.7	1.8	1.9	1.4	1.2	

주 : 1) 남녀 임금격차 및 저임금비중은 2013년 기준이며, 네덜란드의 경우 남녀 임금격차는 2010년 기준, 저임금비중은 2006년 기준임.

2) *는 2013년, **는 2012년.

자료 : OECD, <http://stats.oecd.org/>

스웨덴, 독일, 영국, 미국이 20% 미만 수준을, 일본과 네덜란드가 20%를 넘는 수준을 보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저임금 비중(24.7%)은 비교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지만, 남성 저임금 비중은 16.6%로 미국(21.7%)보다는 낮고, 다른 국가와는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여성의 저임금 비중은 40%에 육박하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약 15%p 이상 높았다.

파트타임 비중은 우리나라는 10.5%로 미국(12.3%)과 유사하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대체로 낮은 수준에 있는 한편, 임시직 비중은 22.4%로 네덜란드(20.6%)에 비해 조금 높은 수준이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취업자 중 제조업의 비중은 24.6%로 산업구조가 상대적으로 제조업에 강한 독일(28.2%), 일본(25.8%)과 함께 취업자의 1/4가량이 몰려 있는 반면, 네덜란드, 미국, 영국은 취업자의 80% 이상이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장시간근로는 이미 잘 알려져 있듯 비교국가에 비해 주당근로시간이 매우 높

은 것으로 나타났고, 출산율은 가장 낮은 수준(1.2명)을 기록하고 있다.

3. 고용률 70%를 달성했을 당시와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는 어떻게 다른가

각 국가별로 고용률이 70%를 넘었던 시점은 상이하게 나타난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각각 1980년과 1963년에 달성했지만 이는 OECD에서 제공하는 조사시점에 이미 70%를 넘은 것이고, 덴마크가 1983년, 미국과 영국이 각각 1988년, 1989년으로 이미 1990년이 되기 전에 70%를 넘어섰다. 한편 일본은 1997년에 달성하였고, 네덜란드는 1999년, 독일은 비교적 최근인 금융위기 직후 2008년에 달성하였다.

고용률 70%를 달성했을 당시 남성 고용률은 덴마크, 독일이 현재 우리나라 남성 고용률 수준에 근접한 반면,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영국, 미국, 일본은 당시에 이미 80%

〈표 2〉 고용률 70%를 달성한 시점과 노동시장 구조비교

(단위 : %)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영국	미국	일본	한국	
70% 달성 시기	1980	1963	1983	2008	1999	1989	1988	1997	2014	
고용률(15~64세)	72.2	71.1	70.3	70.2	70.8	72.0	70.7	70.0	65.3	
실업률	1.7	1.3	9.9	7.6	3.5	7.2	5.6	3.5	3.7	
남성고용률	83.2	88.7	76.2	75.9	80.3	81.8	80.1	82.4	75.7	
여성고용률	60.8	53.3	64.3	64.3	61.1	62.2	61.9	57.6	54.9	
남녀 고용률 격차(%p)	22.4	35.4	11.9	11.6	19.2	19.6	18.2	24.8	20.8	
연령별	15~24세	57.4	65.2	53.0	47.2	65.4	71.1	67.8	45.3	25.8
	25~54세	80.4	75.6	85.2	81.0	79.9	78.3	79.2	79.9	75.7
	(여성)	67.8	55.3	76.8	74.7	68.5	65.5	69.3	64.6	62.7
	55~64세	64.1	63.1	50.6	53.8	29.8	48.6	52.8	64.2	65.6
남녀임금격차	10.1	18.3	13.7	17.9	18.7	33.7	30.1	36.5	36.6	
저임금 비중	전체	-	-	10.1	17.5	12.7	20.8	23.5	15.2	24.7
	남성	-	-	6.1	13.0	10.4	12.1	17.4	6.0	16.6
	여성	-	-	16.2	26.2	23.7	37.8	33.5	35.8	38.9
파트타임 비중	-	-	20.6	21.8	30.4	20.2	-	-	10.5	
임시직 비중	-	-	-	14.7	-	-	-	11.0	22.4*	
산업 비중	제조업	29.7	41.0	28.2	30.0	21.2	32.7	26.9	33.1	24.6
	서비스업	61.9	46.0	64.4	67.8	75.8	65.1	70.3	61.6	69.7
근로시간	-	-	37.2	35.6	32.2	38.9	-	-	44.5	
출산율(명)	-	-	1.4	1.4	1.7	1.8	1.9	1.4	1.2*	

주: 1) 임금격차, 저임금, 임시직 비중 : 노르웨이(1997), 스웨덴(1975), 덴마크(1996), 네덜란드(2002), 한국(2013) 자료임.

2) *는 2013년.

자료 : OECD, <http://stats.oecd.org/>

를 넘는 높은 수준에 있었다. 한편 여성 고용률은 스웨덴,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모두 60% 이상을 기록해 현재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보였다. 비교 국가들 모두 고용률 70%를 달성했던 시기에 남성 고용률은 현재보다는 높고 여성 고용률은 낮아서, 남녀 고용률 격차가 2014년 보다 크게 나타났다. 남성 고용률이 낮았던 독일과 덴마크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남녀 고용률 격차는 20%p 근방에 가까워 현재 우리의 격차에 근접한 수준이었다.

연령별 특징은 현재의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아 청년층(15~24세)과 핵심연령층(특히 여성)은 비교국가들보다 낮았고, 고령층은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에 있었다.

임금수준을 비교해 보면, 임금격차의 경우 영국(33.7%), 미국(30.1%), 일본(36.5%)을 제외한 국가들에서 남녀 임금격차 크지 않았다. 물론 각 국가의 2014년 수준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수준(36.6%)의 절반 이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저임금 비중의 경우 영국(20.8%), 미국(23.5%)은 현재 우리와 유사한 수준으로 높았지만 일본,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는 현재 우리의 수준보다 낮았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저임금 비중이 높지 않은 반면, 여성의 경우 영국, 미국, 일본은 현재 우리와 유사한 수준인 반면,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는 2014년에 비해 높지만 현재 우리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당시 자료가 있는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영국의 파트타임 비중은 현재 우리보다 약 두 배가량 높은 수준이었고, 고용률 70% 달성시점이 1980년대 이전인 국가들은 취업자가운데 제조업 비중이 높아 30~40%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Ⅲ. 성별 고용률 변화와 특징

고용률 70%를 달성했던 시기와 현재 시점을 비교했을 때,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가장 큰 특징은 남성 고용률은 줄고, 여성 고용률은 늘어 고용률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남녀 고용률 변동만 있고 총량은 여전히 높게 유지한 국가(덴마크, 스웨덴, 영국, 미국)도 있었고, 고용률이 증가한 국가(네덜란드, 독일, 일본, 노르웨이)도 있었다(표 3 참조).

네덜란드의 경우는 파트타임 활성화를 통해 여성 고용률을 증대시킨 대표적 사례로 남녀 고용률 격차는 1980년대 40%p에서 최근 10%p까지 줄어들었고, 노르웨이와 스웨덴, 독일, 영국은 10%p 미만으로 줄었다. 일본의 경우 우리와 마찬가지로 남녀 간 고용률 격차가 큰 편이지만, 2010년 이후 빠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고용률 증가 이유는

〈표 3〉 고용률 추이와 남녀 고용률 격차 추이

(단위: %, %p)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영국	미국	일본	한국
전체 고용률(15~64세)									
1980	72.2	79.8	54.5	-	65.2	-	67.2	66.8	59.2
1985	75.0	80.2	50.6	73.9	61.6	66.7	69.0	66.9	57.4
1990	73.0	83.1	61.8	75.4	64.1	72.5	72.2	68.6	61.2
1995	73.5	72.2	65.1	73.9	64.6	69.2	72.5	69.2	63.5
2000	77.9	74.3	72.1	76.3	65.6	72.2	74.1	68.9	61.5
2005	75.2	74.0	71.5	75.9	65.5	72.7	71.5	69.3	63.7
2010	75.4	72.1	74.7	73.3	71.2	70.2	66.7	70.1	63.3
2014	75.3	74.9	73.1	72.8	73.8	72.6	68.1	72.7	65.3
남녀 고용률 격차									
1980	22.4	12.9	40.0	-	31.5	-	24.3	31.1	29.7
1985	18.7	6.7	29.9	12.9	27.8	22.2	20.0	28.1	27.1
1990	11.4	4.3	28.2	9.4	23.6	19.3	16.6	25.5	24.9
1995	9.3	2.6	22.1	13.8	18.5	13.6	13.8	25.4	26.3
2000	7.7	4.1	18.5	9.2	14.8	13.4	12.8	24.1	23.1
2005	6.2	4.4	14.6	7.9	11.8	12.2	12.0	22.3	22.4
2010	4.1	4.9	10.6	4.5	10.0	9.9	8.6	19.9	21.3
2014	3.7	3.4	10.0	6.0	8.6	9.8	10.5	17.9	20.7

자료 : OECD, <http://stats.oecd.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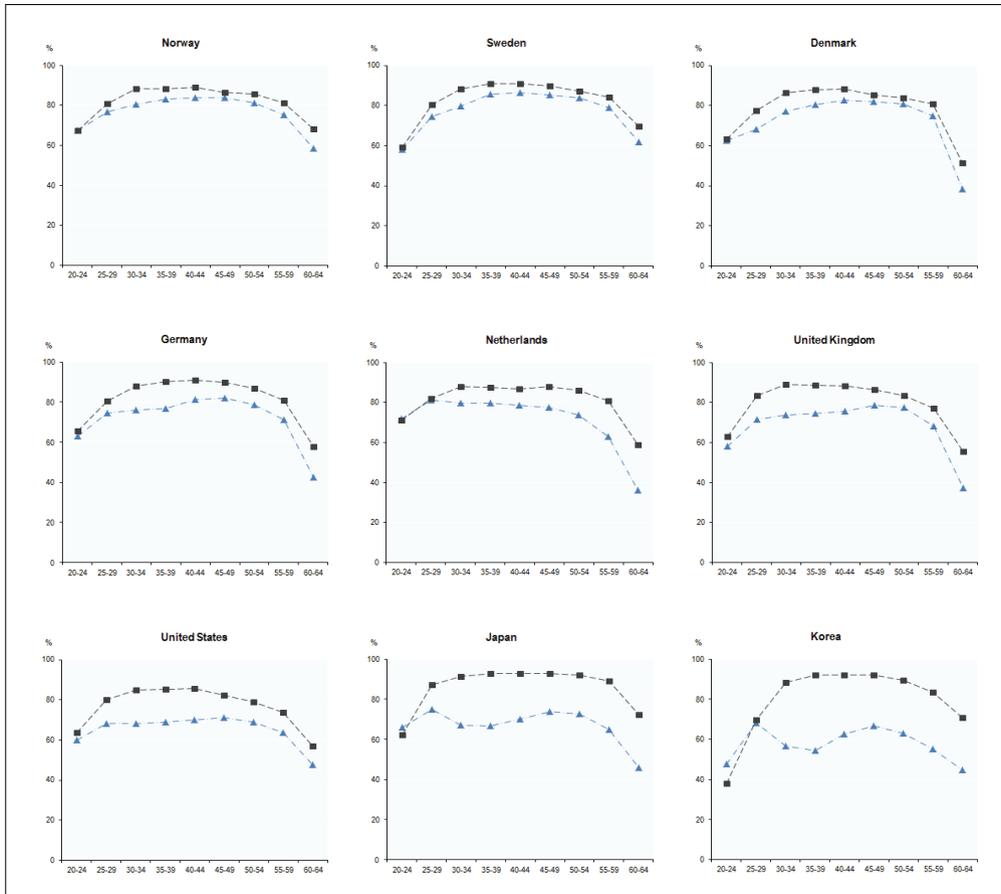
여성 고용률이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이상의 비교에서 남녀 간 고용률 격차가 빠르게 줄어드는 것과 고용률 증가는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는 고용률 증가폭이 크지 않은 가운데 남녀 고용률 격차가 크게 감소하지 않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013년 기준 연령구간별 남녀 고용률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여성의 경우 M커브 곡선이 과거에 비해 많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교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그림 3 참조). 연령구간별로 남녀 간 격차는 일본과는 유사한 모습이지만, 일본 보다 남녀 간 격차가 더 많이 나고 있다. 반면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는 M커브를 보이지 않거나 남성과의 격차가 우리만큼 크지 않다. 대체로 북유럽국가들은 연령구간별 성별 고용률 격차가 거의 없으며, 대륙유럽국가인 독일과 영국이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 한편 네덜란드는 연령이 늘어날수록 남녀 간 격차가 벌어지며, 미국과 일본이 상대적으로 핵심연령층의 남녀 간 고용률 격차를 보였다. 일본과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핵심연령(25~54세) 여성 고용률에 남녀 간 격차가 크지 않은 것은 무엇보다도 임신 출산 육아기의 여성들이 노동시장을 이탈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 주요국가의 연령구간별 남녀 고용률(2013년)

(단위 : %)



자료 : OECD, OECD Family database.

교육수준별 고용률 차이를 국가별로 보았을 때, 남성은 학력구간에 상관없이 비교국가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지만, 여성은 고졸 이하 저학력은 비교국가의 고용률과 비슷한 반면,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에서 비교국가들에 비해 고용률이 낮음을 보이고 있다(표 4 참조). 또한 우리나라는 학력수준과 무관하게 여성과 남성의 고용률 격차가 매우 크며, 학력이 높아질수록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남녀 간 고용률 격차가 줄어드는 경향과 반대인 것이다. 우리나라도 고학력 여성 노동력이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이들의 노동력 손실이 매우 큰 상황으로 고학력 여성의 고용률 증대가 시급하며,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4〉 성별, 교육수준별 고용률 격차(2014년)

(단위: %, %p)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이상		
	남성	여성	격차	남성	여성	격차	남성	여성	격차
한국	77.7	57.7	20.0	84.2	57.9	26.3	89.6	62.3	27.3
일본	-	-	-	85.7	63.7	22.0	92.5	69.1	23.5
노르웨이	66.2	58.0	8.2	85.5	76.9	8.7	91.3	88.1	3.2
스웨덴	72.0	50.1	21.9	85.9	79.0	6.9	90.4	88.3	2.1
덴마크	67.6	53.9	13.7	82.6	75.1	7.5	88.4	85.0	3.4
독일	67.4	50.8	16.6	83.0	74.7	8.3	91.1	83.9	7.2
네덜란드	71.9	50.6	21.3	82.9	73.4	9.4	89.7	86.1	3.6
영국	66.8	49.3	17.5	84.2	72.5	11.7	89.7	80.2	9.4
미국	64.0	40.6	23.4	73.5	61.9	11.6	85.8	75.7	10.1

주: 고졸 이하(Below upper secondary), 전문대졸(Upper secondary or post-secondary non-tertiary), 대졸이상(Tertiary-education).

자료: OECD(2015), *Education at a Glance 2014*.

〈그림 4〉 주요국가의 여성고용률(25~54세)과 합계출산율 관계(1980년, 2013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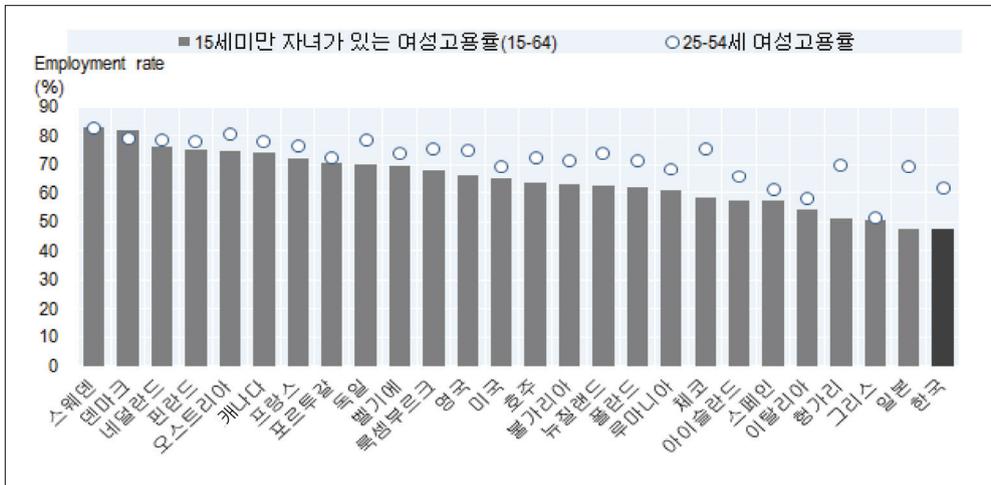


자료: OECD, OECD Family database.

한편 여성노동력 문제와 자녀 문제는 떼어놓고 볼 수 없는 관계로, 출산율과 고용률 관계를 보면, 여성 고용률이 높은 국가에서 출산율이 더 높은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는 출산율과 고용률 간의 관계가 부(-)의 관계를 보였지만 2013년은 정(+의) 관계로 변화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는 출산율은 높지만 고용률은 낮았던 1980년과는 달리, 최근에는 출산율이 가장 낮은 수준이면서 고용률도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OECD 주요국가의 자녀가 있는 여성고용률(2013년)

(단위 : %)



주 : 1) 한국과 일본은 25~54세 여성고용률 중 15세 미만 자녀가 있는 고용률.
 2) 덴마크, 일본은 2012년 자료임.
 자료 : OECD, OECD Family database; 한국은 KLIPS 17차 학술대회 버전.

이는 가구 수나 사회, 제도적 환경에 따른 영향으로 영유아자녀의 양육지원, 육아휴직, 유연한 근무시간제 등 일·가정 양립관련 제도적 차이뿐만 아니라 육아·가사가 여성에게만 집중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육아기 자녀(15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여성 고용률과 전체 여성 고용률을 OECD 주요국 전체와 비교해 본 결과, 우리나라는 육아기 자녀가 있는 여성 고용률도, 여성 전체 고용률도 모두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 참조).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OECD 주요국가 대부분에서 육아기 자녀가 있는 여성 고용률이 높았고, 여성 전체 고용률과의 격차도 크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비교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자녀유무와 무관하게 핵심연령층의 여성 고용률이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15세 미만 자녀가 있는 여성 고용률이 가장 낮은 수준이면서 여성 전체 고용률 간의 격차가 큰 편에 속하고 있다.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에 따른 여성의 고용률과 자녀 수에 따른 여성 고용률 관계를 <표 5>를 통해 비교해 보면, 스웨덴, 덴마크는 15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도 여성 고용률이 80%를 넘고, 독일, 네덜란드는 70%대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자녀유무와 무관하게 비슷한 고용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15세 미만 자녀가 있는 여성 고용률은 47.2% 수준인 데 반해, 25~54세 여성 고용률은 63.7%로 격차가 큰 편이다. 즉 스웨덴,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미국은 15세 미만 자녀가 여성 고용률을 낮추는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다.

〈표 5〉 자녀 수 및 가장 어린 자녀 연령과 여성 고용률 관계 비교(2013년)

(단위 : %)

		스웨덴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영국	미국	일본	한국
여성고용률(25~54세)		82.7	79.0	78.6	78.3	75.2	69.3	68.2	63.7
15세 미만 자녀가 있는 여성 고용률(25~54세)		83.1	82.3	71.3	76.9	64.3	66.5	52.8	47.2
가장 어린 자녀 연령	3세 미만		76.9	53.9	75.6	56.9	58.4	35.3	32.7
	4~6세 미만		80.1	72.6	75.3	61.2	62.4	50.5	41.3
	6~15세 미만		86.7	79.2	78.2	72.6	70.8	64.9	57.0
15세 미만 자녀 수	1명		81.7	76.3	76.3	76.1	71.5	63.5	51.1
	2명		84.3	69.8	80.3	69.2	67.1	63.9	43.3
	3명 이상		78.4	47.5	68.8	48.0	55.6	63.1	37.9

자료 : OECD, OECD Family database; 한국은 KLIPS 17차 학술대회 버전.

가장 어린 자녀가 3세 미만 영유아인 경우는 대체로 고용률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32.7%로 가장 낮은 반면, 일본을 제외한 국가들은 50% 이상의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네덜란드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고용률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가장 어린 자녀가 미취학 아동(4~6세 미만)인 경우 41.3%, 취학아동인 경우 57% 수준에 불과해 비교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는 자녀 수가 많아질수록 고용률이 낮아지는 특징을 보이는 가운데 독일, 영국, 미국은 자녀 수가 2명까지는 큰 변화가 없다가 3자녀 이상인 경우 고용률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5~54세 핵심연령층(특히 고학력) 여성이 노동시장으로 나와 일을 유지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IV. 성별 근로조건의 차이

평소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경우를 파트타임으로 정의할 때, 2013년 기준 우리나라는 여성과 남성 모두 비교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전일제 일자리가 보편적으로 자리 잡은 노동시장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표 6 참조). 그렇지만, 여성의 경우 2000년 중반 이후 파트타임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파트타임 비중이 높게 나타났는데, 미국과 독일과 우리나라가 남성 파트타임 비중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세 국가를 제외한 나라의 남성 파트타임 비중은 10~20% 미만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여성 파트타임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네덜란드로 2013년 기준 여성취업자의 61.1%를 기록하였다. 네덜란드는 1980년대 이후 파트타임 일자리 확산을 통해 여성 고용률이 급격히 증가한 영향이 반영된 것이다. 우리나라와 함께 미국, 스웨덴이 16~18% 수준으로 여성 파트타임 비중이 낮게 나타나 전일제가 보편적 일자리인 반면, 덴마크, 독일, 일본, 노르웨이, 영국 등의 여성 파트타임 비중은 20~40% 수준을 보이고 있다.

남성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1990년에 비해 파트타임 비중이 증가하였지만 여성은 우리나라와 독일, 일본, 네덜란드는 파트타임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한 반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은 시간제 비중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표 6〉 성별 파트타임 고용비중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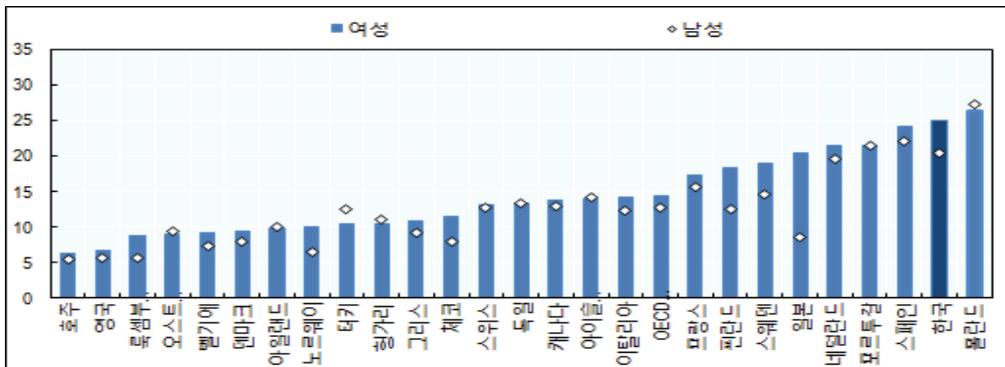
	남 성						여 성					
	1990	1995	2000	2005	2010	2013	1990	1995	2000	2005	2010	2013
한국	3.1	2.8	5.1	6.5	7.2	7.5	6.5	6.6	9.8	12.5	15.5	16.2
덴마크	10.2	9.7	9.3	11.7	13.5	14.2	29.7	25.8	24.0	23.9	25.4	24.7
독일	2.3	3.4	4.8	7.3	7.9	9.1	29.8	29.1	33.9	38.8	37.9	37.9
일본	-	-	-	8.8	10.4	11.3	-	-	-	31.7	33.9	36.2
네덜란드	13.4	11.8	13.4	15.3	17.2	19.3	52.5	55.1	57.2	60.7	60.6	61.1
노르웨이	6.9	7.6	8.7	10.0	11.4	11.3	39.8	37.5	33.4	32.9	29.8	28.8
스웨덴	5.3	6.8	7.3	8.5	10.1	10.6	24.5	24.1	21.4	19.0	19.4	18.4
영국	5.3	7.4	8.6	9.6	11.6	12.0	39.5	40.8	40.8	38.5	39.4	38.7
미국	8.6	8.3	7.7	7.8	8.8	8.2	20.2	20.2	18.0	18.3	18.4	16.7

주: 파트타임은 평소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경우로 정의.

자료: OECD Employment Database.

〈그림 6〉 성별 임시직 비중(2013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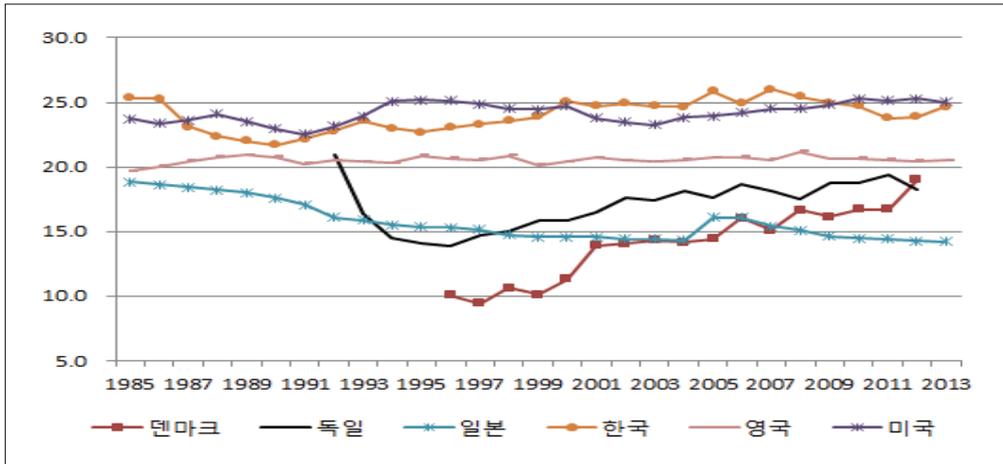


주: 임금근로자 중 임시직(temporary)이거나 기간제(fixed term job contract) 비중.

자료: OECD, OECD Family database.

〔그림 7〕 저임금 비중 추이(1985~2013년)

(단위 : %)

자료 : OECD, <http://stats.oecd.org/>

한편, 낮은 파트타임 비중과 달리 임시직 비중은 OECD국가들 가운데 매우 높은 수준에 있으며, 남성과 여성 모두 높은 편이다(그림 6 참조). 특히 불안정한 일자리에 속하는 여성 비중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5년 이후 최근까지 가용 가능한 자료로 본 저임금 비중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저임금 비중이 거의 20년간 25% 수준을, 영국은 20% 수준에 머무르는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7 참조).

국가별로 보면, 최근으로 올수록 덴마크, 독일에서 저임금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덴마크는 유연안정성 모델을 통해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2000년 이후 저임금 비중이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덴마크의 임시직 비중(남녀 모두)은 10% 미만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어 단순히 유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한 결과로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000년 중반 이후 가파른 고용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독일도 2000년 이후 저임금 고용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미니잡 등 비정규직 활용이 강화되며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일본의 저임금 비중은 장기적으로는 소폭의 감소추세를 보이며 15%를 하회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저임금 비중 추이를 성별로 나누어 보면, 대체로 여성의 저임금 비중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대체로 30%에 근접한 수준으로 높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 임금근로자의 1/4이 저임금상태에 있다(표 7 참조).

최근 저임금 비중이 늘고 있는 덴마크와 독일은 남성과 여성 모두 저임금 비중이 늘고 있는데, 여성이 남성의 10% 이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영국과 미국은 남성 저임금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여성 저임금 비중은 감소하거나(영국),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미국)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남성 저임금 비중이 소폭 증가해 2013년 8.4%를 기록했지만, 비교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변화의 폭도 작으며 여성 저임금 비중도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표 7〉 성별 저임금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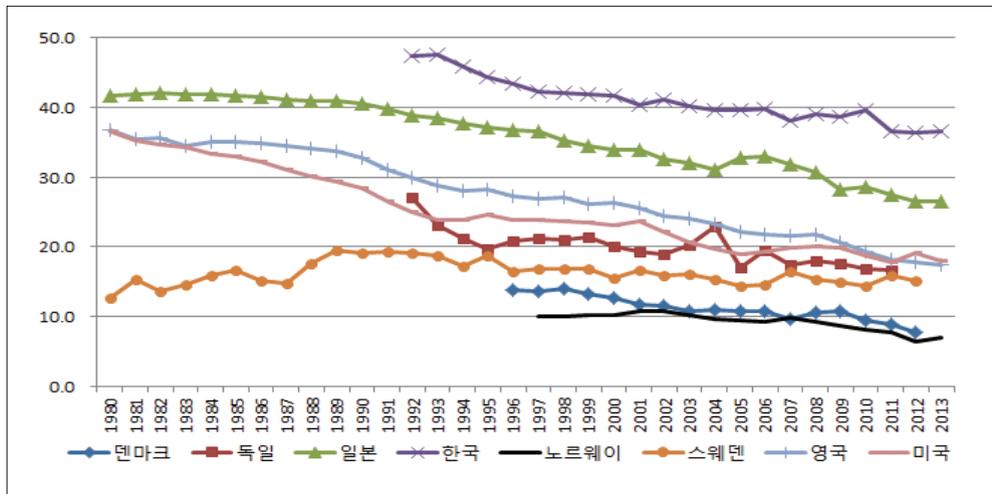
(단위 : %)

	남 성							여 성						
	덴마크	핀란드	일본	한국	네덜란드	영국	미국	덴마크	핀란드	일본	한국	네덜란드	영국	미국
1980	-	-	5.8	-	-	8.5	12.7	-	-	45.9	-	-	41.1	36.4
1985	-	-	6.8	10.1	-	10.1	16.3	-	-	45.3	55.3	-	39.3	34.5
1990	-	-	6.4	-	-	12.2	16.8	-	-	42.6	-	-	36.9	31.3
1995	-	9.1	6.0	11.7	-	13.8	19.7	-	25.2	35.9	47.9	-	33.0	32.5
2000	7.1	10.9	6.7	15.1	10.4	14.0	19.3	18.1	26.7	33.1	45.8	23.6	31.6	31.7
2005	10.6	12.0	8.2	17.9	11.0	15.2	19.7	20.6	29.0	33.7	41.9	25.6	29.5	29.4
2010	12.3	14.5	8.1	16.1	-	15.9	21.6	23.5	26.4	28.2	40.4	-	28.1	29.9
2012	14.3	14.7	8.3	16.5	-	16.2	21.5	26.2	24.8	26.7	37.3	-	27.1	30.1
2013	-	-	8.4	16.6	-	16.1	21.7	-	-	26.3	38.9	-	27.4	29.2

주 : 네덜란드는 2002년과 2006년 값.
 자료 : OECD, <http://stats.oecd.org/>

〈그림 8〉 남녀 임금격차(중위임금, 전일제근로 기준) 추세, 1980~2013년

(단위 : %)



자료 : OECD, <http://stats.oecd.org/>

남녀 임금격차 추세를 보면, 우리나라의 임금격차는 비교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감소하는 속도가 느리게 줄어들고 있다(그림 8 참조). 여성 저임금 비중이 남성에 비해 매우 높은 국가일수록 남녀 임금격차는 클 수밖에 없는데, 분석 결과에서도 여성 저임금 비중이 높을수록 남녀 임금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남녀 임금격차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V. 보육정책과 유연근로제

GDP대비 영유아 및 미취학아동 보육비 지출비용을 비교해 보면, 덴마크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이고, 우리나라는 0.8%로 OECD 평균 지출수준인 0.8%에 근접하지만 비교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9 참조). 미국과 덴마크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는 미취학 아동보다 영유아 아동의 지출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보육비 지출의 대부분이 영유아 보육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미취학 아동에 대한 지출은 절대 액수도 작고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수준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아동의 보육방식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식적 유급보육인 돌봄기관, 유치원(공공/민간) 등 등록된 기관을 통한 ‘공식적 방식’과 비공식적 무급보육인 조부모, 친지, 이웃이나 친구 등을 통한 ‘비공식적 방식’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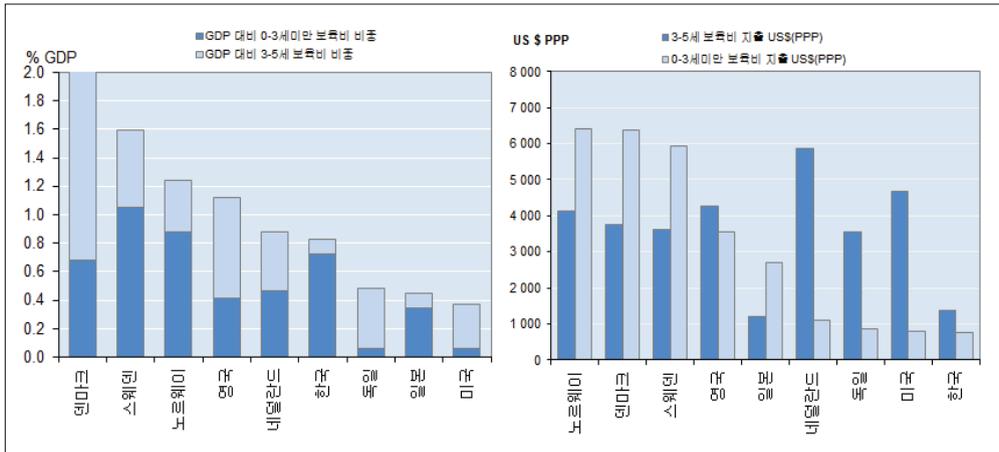
먼저 [그림 10]의 공식보육참여율을 보면, 2013년 기준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국가의 0~2세 영유아의 공식보육참여율은 50%가 넘는 높은 수준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30% 수준으로 영국과는 비슷한 수준이고 독일, 미국, 일본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이는 GDP대비 보육비 지출비중과 유사한 경향으로 보육비 지출비중이 낮은 국가군인 독일, 일본, 미국의 공식보육참여율이 가장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한편 3~5세 미취학 아동의 공식보육참여율은 모든 국가가 높은 수준이며, 우리나라도 9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반면 비공식적 방식인 경우 대표적인 방식이 조부모를 통한 것이다. <표 8>을 보면, 우리나라는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비공식보육 참여 비중이 높는데, 0~2세 영유아인 경우 27.7%가, 3~5세 미취학 아동의 경우 23.6%가 비공식 보육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유럽국가 중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은 공식보육의 의존도가 더 높아 비공식보육 참여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인 반면, 네덜란드와 미국, 영국은 비공식 보육 수준이 매우

[그림 9] GDP에서 보육관련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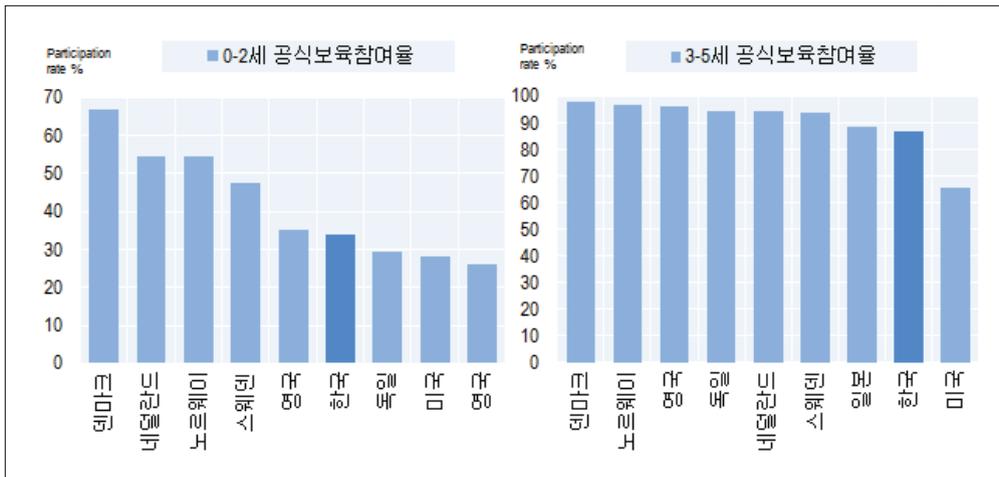
(단위: %, 달러)



자료 : OECD, OECD Family database,

[그림 10] 공식보육 참여율(0~2세는 2013년, 3~5세는 2012년)

(단위: %)



자료 : OECD, OECD Family database.

높으며, 특히 네덜란드의 참여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영국은 GDP대비 보육비 지출이 낮은 국가로 비공식보육 방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네덜란드의 경우는 가부장적 복지국가의 대표적 유형으로, 육아와 가사의 부담이 기혼여성에게 더 많고, 취학/미취학 아동의 점심식사를 집에서 먹도록 하는 제도로 인해 공식/비공식 보육참여율이 높게 나타난다. 주당 비공식보육 참여시간을 보면 네덜란드의 경우 매우 짧은 것이 그 이유이다.

〈표 8〉 자녀 연령별 비공식보육 참여율과 참여시간(2013년)

(단위: %, 시간)

	비공식보육 참여비중			주당 비공식보육 참여시간		
	0~2세	3~5세	6~12세	0~2세	3~5세	6~12세
덴마크	0.5	0.2	1.0	20.0	5.0	7.3
노르웨이	7.4	3.5	6.2	14.7	7.8	9.4
스웨덴	0.6	1.7	1.3	10.0	11.5	10.3
네덜란드	48.1	50.6	32.3	9.8	7.0	4.9
영국	35.0	39.6	34.0	15.1	15.0	14.5
미국	32.4	37.6	27.5	-	-	-
한국	27.7	23.6	14.8	-	-	-

주: 한국은 2009년, 미국은 2011년임.
 자료: OECD, OECD Family database.

정리하면, GDP대비 보육관련 지출비중도 높고 공식보육참여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비공식보육 비중이 낮고, 그 반대로 보육관련 지출비중이 낮고 공식보육참여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비공식보육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연근무제(Flexibility in working time)는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정친화적 제도의 대표적인 제도로, 근로시간 조정을 통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크게 시차출퇴근제, 탄력근무제(선택적 근무제), 근로시간 계좌제(연간누적근로시간제) 등이 있다.

유럽의 사업체조사(2013)에서 회사가 유연근무제를 제공하는 비중을 보면, 사업체 대부분이 유연근무제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친화적 정책을 통해 학업이나 육아, 가사 등과 일 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덴마크,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는 유연근무제를 제공하는 사업체 비중이 90%를 넘으며, 영국은 80%가 유연근무제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표 9〉 사업체의 유연근무제 제공비중(2013년)

(단위: %)

	유연근무제 제공 비중	시차출퇴근+선택적 근무시간제 (혹은 탄력근무제)	선택적근무시간제 (혹은 탄력근무제)	시차출퇴근제만
덴마크	97.0	76.9	10.5	9.5
스웨덴	94.8	74.2	13.5	7.1
독일	94.5	62.0	29.0	3.5
네덜란드	93.8	66.5	19.6	7.7
영국	80.1	46.8	11.1	22.2

자료: OECD, OECD Family database; 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2013.

는 내용이 시차출퇴근을 하면서 탄력근무제(선택적 근무제)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었는데 덴마크와 스웨덴은 70%를 넘는 사업체가, 독일과 네덜란드는 60% 넘는 사업체가 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시차출퇴근만 제공하는 경우는 영국을 제외하고 10% 미만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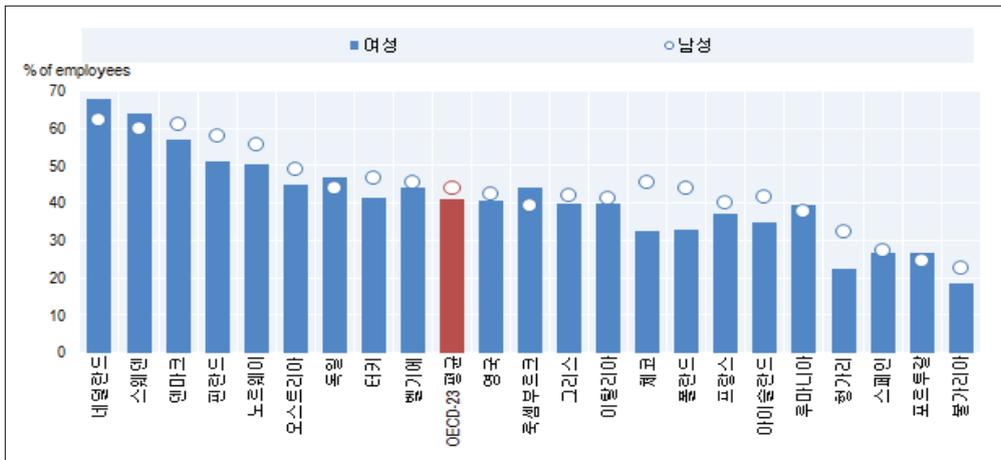
[그림 11]을 보면 유연근무제를 실제 사용하는 비중은 OECD 평균 남녀 모두 40% 수준인데,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등 본 연구에서 비교하고 있는 국가들은 50~70% 수준으로 높은 편이며, 유연근무제 사용에 있어 남녀 간 격차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률이 높은 유럽국가들은 유연근무제와 별도로 근무지가 아닌 곳(집)에서 일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고, 그러한 제도를 사용한 비중이 비교국가들에서 높은 수준임을 보이고 있다(그림 12 참조). 특히 덴마크는 남성과 여성 모두 지난 3개월간 채택근무경험 비중이 30%를 넘었으며, 성별격차가 그리 크지 않았고, 대체로 고용률이 높은 국가에서 채택비중이 높은 것이 확인된다. 국가별 성별 차이는 있지만, 지난 3개월간 채택근무를 경험한 비중은 임금근로자의 10~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8월 경제활동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유연근무제 관련 항목이 신설되어 조사되었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경우는 4.6%로 OECD 비교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표 10 참조). 아직 우리나라는 유연근무제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질문도 유연근무제도가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현재 활용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림 11] 성별 유연근무제 사용 비중(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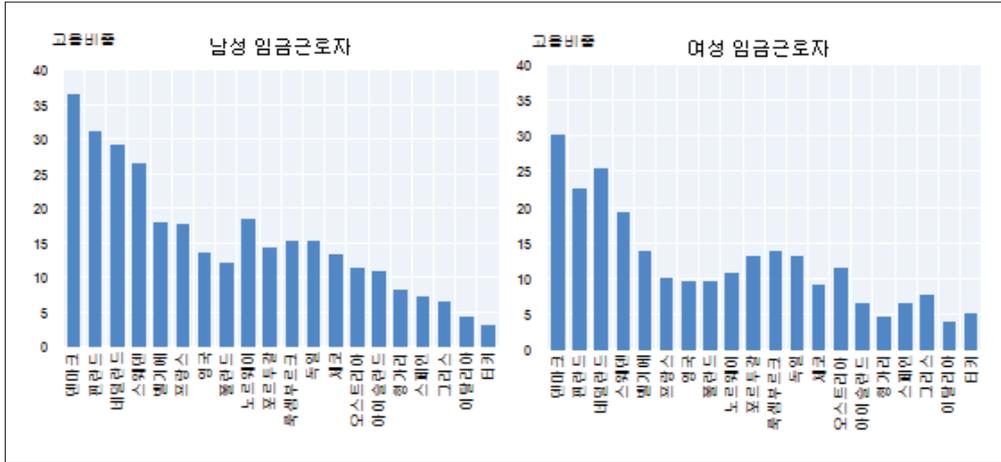
(단위 : %)



자료 : OECD, OECD Family database; 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2010.

[그림 12] 임금근로자 중 지난 3개월간 재택(원격)근무를 경험한 비중 : 성별 비교(2010년)

(단위 : %)



자료 : OECD, OECD Family database.

<표 10> 유연근무제 활용 및 활용 희망 유형(2015년)

(단위 : %, 천명)

	유연근무 여부	근로시간 단축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선택적 근무시간제	재택 및 원격 근무제	탄력적 근무제	기타유형
유연근무활용	896 (4.6)	0.4	41.9	33.3	7.2	26.4	12.2
유연근무제 미활용자 중 활용희망	6,791 (36.9)	21.2	29.2	41.3	8.0	27.3	6.7

주 : 2015년 8월 임금근로자는 19,312천 명이고, 유연근무제 미활용자는 18,416천 명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15년 8월.

유연근무제 활용자 중 유연근무 활용내용으로는 시차출퇴근제(41.9%)가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선택적근무시간제(33.3%), 탄력근무제도(26.4%)가 이었으며, 재택/원격근무제는 7.2%에 그쳤다. 유연근무제 미활용자 중 활용희망자는 36.9%로 높은 편이며, 남성은 35.1%, 여성은 39.1%로 여성이 약간 더 높게 나왔다. 유연근무제 활용을 희망하는 형태는 선택적근무시간제가 가장 많았고(41.3%), 탄력근무제, 시차출퇴근제, 근로시간단축제가 비슷한 비중을 보였다.

VI. 맺음말

고용률 70% 이상 달성한 국가와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를 비교한 결과 무엇보다도 핵심연령층 여성의 고용률 증대가 고용률 제고의 핵심이라 볼 수 있다. 남성 고용률은 비교국가들과 유사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에 불과했다면, 여성 고용률은 10~20%p 이상 격차를 보이며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핵심연령층(25~54세)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이 큰 이유로 적절한 보육정책과 가정친화적 제도를 통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안정적 일자리 확보와 유지가 필요해 보인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구조에서 여성의 일자리는 비교국가들에 비해 높은 저임금비중, 좁혀지지 않은 큰 남녀 임금격차, 높은 임시직 일자리 비중과 같이 상당부분 불안정한 일자리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불안정한 단기 일자리 확충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핵심연령층 여성(특히 고학력)이 노동시장으로 유입되어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환경조성이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핵심연령층의 여성고용문제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이며, 정책의 방향이 단기 일자리 확충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선진국 수준에 가깝게 공식보육률을 확대하고, 경력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로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KLI**